

국제 전화 “전화카드보다 싸게 건다”

포닉뷰사 편리하고 저렴한 인터넷 전화기 시판 / 각 딜러에서 무료 통화 서비스 실시 중

한달에 9달러 95센트의 기본요금으로 한국과 300분간 통화할 수 있어 전화카드의 히든 코스트를 감안한다면 훨씬 저렴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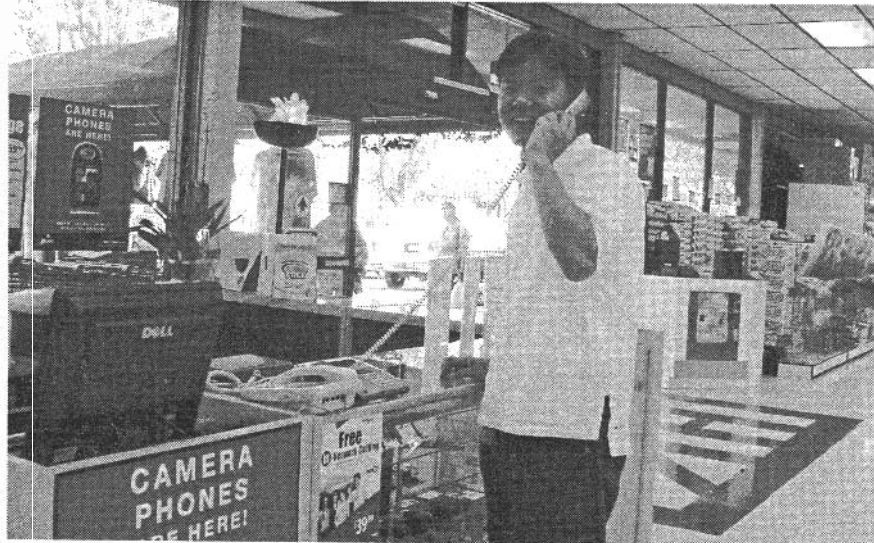
또한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이 포닉뷰 전화를 갖고 있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으로 전화할 때 한국에서의 시내 통화요금만으로도 미국과의 국제통화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화를 통해 전화요금 부담없이 편리하게 한국과 통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플레즌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포닉뷰(대표 조종현)가 보급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하면 현재 시판중인 전화카드나 일반 전화회사의 국제전화 플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과의 통화가 가능하다.

포닉뷰 전화기를 구입한 후 한달에 9달러 95센트를 내면 한국과 300분간 통화할 수 있다. 전화카드의 히든 코스트를 감안한다면 훨씬 저렴한 셈이다.

포닉뷰 전화기를 구입하면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전화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제전화를 걸더라도 한국내 시내통화요금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이 포닉뷰 전화를 갖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으로 전화할 때



포닉뷰 조종현 사장이 한국마켓내 셀컴 와이어레스에 설치되어 있는 포닉뷰 전화기로 한국과 통화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시내 통화요금만으로도 미국과의 국제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화할 때 일반 전화번호(415 혹은 408 등 미국의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국제요금이 부과되지만 포닉뷰 전화기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한국내 시내통화 요금으로 부담없이 통화할 수 있다. 또한 전화통화량이 많은 경우 한국에서 전화를 거는 상대방도 포닉뷰 전화를 갖고 있으면 한달에 9달러 95센트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무제한 통화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 외에도 포닉뷰 전화기는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초창기 인터넷 전화의 경우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비해 포닉뷰 전화기는 컴퓨터를 켜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전화기처럼 쉽게 걸고 받을 수 있어 컴퓨터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운 노년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저렴한 요금에 사용까지 편리하다면 과연 통화품질은?

조 사장은 “일반 전화기와 비교해 조금도 떨

어지지 않은 통화 품질을 보장한다”며 “이미 포닉뷰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도 통화 품질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포닉뷰사는 소비자들이 직접 전화통화를 해 볼 수 있도록 북가주 지역 한인 식품점내 전화가게에 전화기를 설치해놓고 있다. <오클랜드 부산플라자 내 셀룰라 플러스 > <국제마켓내 탐셀룰라 > <산타클라라 교포시장 옆 전화세상 > <한국마켓내 셀컴 와이어레스 > <셀컴 와이어레스 산타클라라 지점(3400 El Camino Real)에서 포닉뷰 전화를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오는 20일(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오클랜드 부산플라자 앞 주차장에서 무료 통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포닉뷰사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전화기 및 인터넷 게이트웨이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전화기는 139달러 95센트, 일반 무선전화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149달러 95센트이다.

포닉뷰사는 또한 전화기 구입이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해 렌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55달러를 디파짓하고 한달에 9달러 95센트만 내면 전화를 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두달 사용 후 전화기 구입을 원할 경우 디파짓과 렌트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포닉뷰 전화기 구입에 관한 사항은 포닉뷰 본사(925-463-4849)나 또는 각 딜러(셀룰라 플러스, 전화세상, 셀컴 와이어레스, 탐셀룰라)로 문의하면 된다.